

## 【 5 】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제출년월일 : 2002. 12. 2

제 출 자 : 김완수의원외 7인

### ☐ 발의이유

지난 6월13일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불공정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자의 문책은 물론 유가족과 우리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위해 불임과 같이 의원 모두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

### ☐ 주요골자

1.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죄평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자 모두를 한국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이양하라.
2. 양국의 평등적인 지위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고 주한미군 훈련장을 폐쇄하라.
3.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미군 범죄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덧붙임 : 결의문 1부.

## 결 의 문

지난 6월 13일 우리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350호 도로상에서 꽃다운 나이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 당한 故 심미선·신효순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민의 자존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양주군의회를 입장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과 연접해 있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에는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고 우리군에는 이와 관련한 많은 군사시설과 훈련장 등으로 수십년에 걸친 군민 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가축피해, 교통장애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우리 군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보편화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불편부당은 차치하더라도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재판결과를 보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시대 상황에 맞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죄평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자 모두를 한국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이양하라.
2. 양국의 평등적인 지위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고 주한미군 훈련장을 폐쇄하라.
3.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미군 범죄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2월 5일

양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